

한국의 화장실문화를 체험하고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화장실문화라는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하여 한·일 양국의 우호교류라는 형태의 큰 교류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일본의 화장실을 소개합니다.

아마시타 토루(山下 亨) 현대화장실사정연구회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국 자치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만, 휴가시간을 활용하여 『세계의 화장실 문화』와 『자연재해시의 화장실 대책』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증조부께서 한국에 관심이 많은 한학자였기 때문에 유년시절부터 한국비교문화론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한국의 민주제도의 형성과정과 김옥균 선생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의 화장실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화장실협회 활동

지난 11월9일부터 3일간,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시 마네현 마츠에시(市)의 [마츠에테르사]에서 제 16회 전국 화장실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습니다. 금년 화장실 심포지움에서 다루어진 주된 테마는 「자연관광지에서의 화장실 정비」, 「관광도시의 화장실정비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논의」 외에 「제1회 아시아 태평양 화장실 네트워크 회의」를 분과회의 형식으로 실시하였고, 아울러 「제 16회 굿 토일렛 10」과 「토일렛 레포트 쿤쿠르 2000」도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심재덕 회장님(수원시장)을 비롯하여 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 회원도 다수 참가하여 발표하였고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대표가 참가하여, 21세기를 향한 화장실문화가 더욱더 국제화되고 새롭게 협력해 가는 태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화장실문화라는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하여 한일우호교류라는 형태의 큰 교류가 생겨 나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일본 마쓰에 城의 화장실 모습.

한·일 화장실문화 교류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28일, 29일에 수원에서 개최된 『제 1회 한·일 화장실 포럼 2000』에 참가했던 저는 심재덕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 화장실문화의 각계 대표들이 발표한 내용 하나하나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기 전 4일간을 이용하여, 오랜 친구인 행정자치부 소방국 간부들의 안내로 서울, 부천, 인천, 강화도(마이산), 경주, 부산, 판문점 등 각 도시와 지역을 둘러보며, 관광지, 상점가, 아파트, 민가, 온돌식 호텔, 주유소, 역, 새마을호 등의 화장실 사정을 견학하고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알게된 것은 한국의 화장실 문화는 [한국다운 청결감, 미(美)의식, 주변경관 배려] 외에 「Korean Hospitality」 즉, 한국과 조화를 이룬 접대의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일본의 화장실 사정에 대하여 정거적으로 원고를 받아
「미소공」에 소개하기로 합의하고 기념촬영
왼쪽부터 통역과 번역을 도와주시는 국제교류원 류정자,
편집부장 박윤남, 현대화장실사정연구회 대표 야마시다 도무



동안이었으나 한국 체류 중에 느낀 점에 대해서는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의 한사람으로서 또 다른 기회를 통해 기술할 예정입니다.

「美小空」에 지면을 할애 받아 한국의 역사, 풍토, 생활, 습관 등과 밀접히 관계된 한국 화장실문화의 원점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감동이 계기가 되어 제 자신 속에서도 우정과 문화의 교류에 대한 전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언제나 한일화장실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배려한 히라쓰카 철도역 화장실 내부의 장애인 화장실.

국민을 접대하는 마음으로 화장실 대책을 세워야

일본은 세계 유수의 지진국가이며 태풍, 호우, 화산분출 등이 많은 자연 재해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인은 지독한 자연재해와 공생(共生)하며 조화를 이루며 생활해 왔습니다. 이런 재해 시에도 실은 응급조치인 화장실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국민이 참가하는

대형 이벤트 행사나, 관광지에서도 화장실 대책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화장실을 어떻게 확보할지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입니다. 국민에 대해 '접대하는 마음'으로 화장실 대책을 실시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신체장애자의 사회 참여를 원활히 해나가기 위한 「장벽(장애)제거 (Barrier-Free)론」이 왕성히 일고 있습니다. 이 논의의 중핵이 되는 것은 「장애자를 위한 화장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화장실 대책에는 '접대의 정신(Hospitality)'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2000년 8월에 「현대의 화장실 사정 - 재해·이벤트 편 (東京法舎出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선비문화에서 발전한 예절의 나라인 한국은 이러한 사상의 대선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현재 「판문점의 밝은 화장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집필 중에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에 앞으로 반드시 「화장실문화의 교류」도 추가되리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의 친구들과 선배님들에게 「일본의 화장실 사정(事情)」에 대해 美小空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해 가면서, 한국의 독특한 화장실문화를 겸허히 배워가고자 합니다. 이제 한일화장실문화의 교류는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의 독자적인 민족문화를 소중히 하면서 화장실 문화가 현실적으로 착실히 발전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